군산-익산-남원 등 14개 시·군 잇는 '전북 1000리 길'

"관광하고 힐링하고" 전북도 걷기 좋은 길 만든다

道, 연말까지 둘레길 선정
각 지역별 관광명소 연결
노선·편의시설 등 재단장

군산 청암산 구불길

부안 변산마실길

남원 지리산 둘레길 전경

전북도가 대표적 둘레길을 연결한 '전북 1000리 길'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14개 시·군을 대표할 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전북지역에 조성된 둘레길은 대략 100여개(총 800㎞)로, 전북도는 지역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길을 엮어 1000리길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 대표 1000리 길로 선정되면 노선·편의시설 정비, 희귀 노선 개발, 안내체계 구축 등을 더해 걷기 좋은 길로 재단장한다.

또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통합 안내지도, 가이드북 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 교통수단, 먹거리, 주변 관광자원을 알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도 다양한 길이 걷기 좋은 길로 추천되고 있다.

군산의 경우 청암산 일대를 도는 청암산 구불길(7㎞)과 선양동 해돋이공원~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4.27㎞ 구간이 걷기좋은 길로 알려져 있다.

익산에서는 왕궁 오층석탑~미륵사지~가람 이병기 생가~사자암으로 이어지는 미륵산 둘레길과 함라산부잣집~함라산~웅포유원지를 거치는 함라산길이 추천길로 오르내린다.

남원지역은 지리산 둘레길 1코스인 주천~운봉 구간과 만복사~대복사~교룡산성~광한루를 잇는 남원시내 코스, 교룡산성 둘레길 등이 지역 전경을 둘러볼 수 있는 추천길로 꼽힌다.

순창 지역 걷기좋은 길로는 동계면 회룡마을~장구목~구미리~평남리로 이어지는 섬진강길과 강천산 입구에서 강천산 출렁다리까지 강천산 풍광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강천산길이 대표적이다.

부안에서는 새만금방조제~변산 해수욕장~고사포~수성당~격포해수욕장~채석강 등을 도는 변산마실길 코스가 걷기에 적합한 길로 전문가들 추천을 받고 있다.

정읍은 동학길, 정읍사 오솔길 등이 전문가들의 추천 코스다. 동학길의 경우 고부초~고부향교~군자정~황토현~말목장터~전봉준옛집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게 특징이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14개 시·군의 대표 길을 연말까지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순창=장양근기자 jyg@
/남원=백선기자 bs8787@
/익산=유정영기자 yjy@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리산 허브 산업' 우수지역특구 선정

남원시, 힐링 메카로 육성

남원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충분한 '우수지역특구'에 이름을 올렸다. 남원시는 힐링의 메카로 특구를 활성화시켜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키워다는 복안이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리산 웰빙 허브 산업특구'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에서 '우수지역특구'로 뽑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3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지역 향토자원인 '허브'를 특화, 지난 2005년 9월에 지정됐으며 허브복합토피아관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자신만의 화장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허브 농장 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허브와 눈꽃을 테마로 한 다양한 축제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됐다.

남원시는 특구 내 다양한 이벤트 및 축제 개최, 관광호텔과 아로마테라피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개발, 힐링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우수상), 광양 매실산업특구(장려상),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등 13개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추억의 가곡 들으며 겨울밤 낭만 즐겨요

30일 순창군 향토회관

순창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향토회관에서 '2017 드림 팝스 콘서트'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따라 ㈔드림필오케스트라 주관으로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윌리엄 텔 서곡, 금과 은의 왈츠, 베사메 무쵸 등 친숙한 연주곡과 드라마 '모래시계' OST로 유명한 '백학', 장터아리랑, 살짜기옵서예 등 대중성 있는 가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가수 강은철도 무대에 올라 히트곡인 '삼포로 가는 길' 외에 '내 잘못인가' 등 7080세대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만한 음악을 선보인다.

/순창=장양근기자 jyg@

군산 청년 손맛 담긴 '브라더 새우장' 선보여

이마트 스타상품 선정 … 시장성 검증 후 본격 판매

'브라더 새우장' 곁들인 세트요리.

군산 청년들이 만든 '새우장'이 대형마트 스타상품으로 꼽혀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이게 됐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물랑루즈201'에 입점한 '브라더 새우장(장 담그는 청년들)'은 최근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상인 스타상품 육성 프로젝트 전국대회'에서 이마트 스타상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국내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우수 상품을 적극 발굴, 스타상품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500개 전통시장 청년 상인팀이 지난 7월부터 선의의 경쟁을 펼쳐 30개 팀으로 압축됐고 최종 테스트 판매를 거쳐 16개 스타상품이 선정됐다.

'브라더 새우장'은 옛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재래방식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맛과 기능, 디자인, 상품성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더 새우장'은 신세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테스트 입점 행사를 거쳐 시장성을 검증받은 뒤 이마트 상품으로 정식 입점, 판매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푸드트럭 활용
구도심에 활기를

익산시, 정책 발굴 앞장

익산시가 푸드 트럭을 활용, 구도심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와 중앙·매일·서동시장을 잇는 지점에 '별밤아래 푸드 트럭'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10개의 푸드 트럭을 지난 17~18일, 23~24일 원도심 일대에 배치, 도심을 걷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펼쳐 머무르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시는 '별밤아래'라는 이름으로 열린 푸드 트럭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근 야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별밤화폐'를 지급했고 행사장에 온 수능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야광 머리띠를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함께 뛰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잇자"

동학마라톤대회 개최
내년 2월 25일 정읍 일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제 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동학마라톤대회는 내년 2월 25일 정읍시내에서 풀, 하프, 10㎞, 5㎞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며 희망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정읍동학마라톤 누리집(www.jdmarathon.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0㎞까지는 3만원, 5㎞는 1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상금과 함께 각각 2만원 상당의 정읍 농산물을 준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인이 준비해야 할 것

부안군 '미래형 농업정책' 토론회서 시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 농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안군이 최근 마련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본도시 부안' 토론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 미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농업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의 등을 들으며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 머리를 맞댔다.

부안군은 토론회에서 발굴된 시책과 건의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농업분야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이전함 4억
투자 · 매도 · 교환
• 충장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축적합 60억
• 해남 산이면 5182㎡ 분할해서 전원주택적합 감정25억선 매도13억
• 광산구 장수동 9548㎡ 아울렛·창고·공장용 73억
• 함평 해보면 2종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종주거지 758㎡ 다가구등 적합 7억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2천
• 함평 2종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텔 등 30억
• 두암동 토지 315㎡ 건평 5층 749㎡ 의원 등 적합 11억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양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음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8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
▶매매가 상담 후 결정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헌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BN BN테크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